

### 1.3 행렬의 연산

행렬의 성분이 실수인 행렬의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하여 알아보자.

#### 정의 1.3.1 [행렬의 상등]

행렬  $A$ 와  $B$ 의 크기가 같고 행렬의 각 성분이 서로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. 즉, 행렬  $A = [a_{ij}]_{m \times n}$ 과  $B = [b_{ij}]_{p \times q}$ 일 때,  $A + B \Leftrightarrow m = p, n = q$ 이고 모든  $i = 1, 2, \dots, m$ 과  $j = 1, 2, \dots, n$ 에 대하여  $a_{ij} = b_{ij}$ 이다.

행렬의 덧셈과 곱셈을 정의하기 전에 덧셈과 곱셈에 관한 항등원을 먼저 정의하자.

#### 정의 1.3.2 [영행렬과 항등행렬]

(a) 크기가  $m \times n$ 인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일 때, 이 행렬을 영행렬(zero matrix)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.

$$\mathbf{0} = [0]_{m \times n}$$

(b)  $n \times n$ 인 정방행렬에서 대각성분이 모두 1이고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모두가 0인 행렬을 항등행렬(identity matrix)이라 정의하고  $I_n$ 이라 표시한다. 즉,  $I_n$ 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.

$$I_2 = \begin{bmatrix} 1 & 0 \\ 0 & 1 \end{bmatrix}, \quad I_3 = \begin{bmatrix} 1 & 0 & 0 \\ 0 & 1 & 0 \\ 0 & 0 & 1 \end{bmatrix}, \quad I_n = \begin{bmatrix} 1 & 0 & 0 & \cdots & 0 \\ 0 & 1 & 0 & \cdots & 0 \\ \vdots &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0 & 0 & 0 & \cdots & 1 \end{bmatrix}$$

크기에 상관없이 항등행렬을  $I$ 로 나타내자.

행렬의 덧셈과 상수곱에 관하여 정의하자.

#### 정의 1.3.3 [행렬의 연산]

(a) **(행렬의 상수곱)**  $c$ 가 상수일 때, 행렬  $A$ 에 상수  $c$ 의 곱은 행렬  $A$ 의 각 성분  $a_{ij}$ 에 상수  $c$ 를 곱하는 것이다.

$$(cA)_{ij} = ca_{ij}$$

(b) **(행렬의 덧셈)** 행렬  $A$ 와  $B$ 의 크기가 같을 때, 행렬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 두 행렬의 합  $A + B$ 의  $(i, j)$ 번째 성분  $(A + B)_{ij}$ 는 행렬  $A$ 의  $(i, j)$ 번째 성분  $a_{ij}$ 와 행렬  $B$ 의  $(i, j)$ 번째 성분  $b_{ij}$ 의 합이다. 즉,

$$(A + B)_{ij} = a_{ij} + b_{ij}.$$

행렬의 상수곱과 덧셈의 정의에 의하여 크기가 같은 행렬  $A$ 와  $B$ 의 뺄셈은 다음과 같다.

$$(A - B)_{ij} = a_{ij} - b_{ij}$$

#### 정리 1.3.4 [행렬의 덧셈과 상수곱에 관한 연산법칙]

$c_1$ 과  $c_2$ 가 상수이고,  $A$ ,  $B$ ,  $C$ 가 크기가 같은 행렬이며  $\mathbf{0}$ 를 주어진 행렬과 크기가 같은

영행렬이라 하면 다음 연산법칙이 성립한다.

- (a)  $A + B = B + A$
- (b)  $(A + B) + C = A + (B + C)$
- (c)  $\mathbf{0} + A = A + \mathbf{0} = A$
- (d)  $A + (-A) = \mathbf{0} = (-A) + A$
- (e)  $(c_1 + c_2)A = c_1A + c_2A$
- (f)  $c_1(A + B) = c_1A + c_1B$
- (g) 만일  $c_1A = \mathbf{0}$  이면  $c_1 = 0$  이든지 또는  $A = \mathbf{0}$  이다.

이제 행렬의 곱셈에 관하여 정의하자.

### 정의 1.3.5 [행렬의 곱셈]

$A = [a_{ij}]_{m \times p}$  이고  $B = [b_{ij}]_{p \times n}$  일 때, 두 행렬  $A$  와  $B$  의 곱  $AB$  는  $m \times n$  행렬로 정의되고  $AB = C$  라 하면 행렬  $C$  의 각각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.

모든  $i = 1, 2, \dots, m$  과  $j = 1, 2, \dots, n$  에 대하여  $AB = C = [c_{ij}]_{m \times n}$  은

$$c_{ij} = a_{i1}b_{1j} + a_{i2}b_{2j} + \dots + a_{ip}b_{pj} = \sum_{k=1}^p a_{ik}b_{kj}$$

이다.

(예제 1)  $A = \begin{bmatrix} 1 & -2 \\ 3 & 1 \end{bmatrix}$ ,  $B = \begin{bmatrix} -3 & 0 \\ 1 & 1 \end{bmatrix}$ ,  $C = \begin{bmatrix} 1 & -2 & 2 \\ 4 & -1 & 3 \end{bmatrix}$ ,  $D = \begin{bmatrix} 1 & -2 \\ 2 & 4 \\ -1 & 3 \end{bmatrix}$

다음 행렬의 연산이 존재하면 행렬을 구하여라.

(1)  $3A - 4B$

(2)  $B + C$

(3)  $AB$

(4)  $BA$

(5)  $DC$

(6)  $CD$

(7)  $AD$

결론적으로 행렬의 곱  $AB$ 와  $BA$ 가 모두 정의될지라도 일반적으로  $AB \neq BA$ 이다. 따라서 행렬의 곱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.

$A = \begin{bmatrix} 1 & 0 \\ 0 & 0 \end{bmatrix}$ 이고  $B = \begin{bmatrix} 0 & 0 \\ 0 & 1 \end{bmatrix}$ 일 때  $AB = \mathbf{0}$ 이다. 즉 행렬  $A$ 와  $B$ 가 모두 영행렬이 아니어도 행렬의 곱  $AB$ 가 영행렬이 될 수 있다.

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행렬을 좀 더 작은 부분행렬로 분할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다. 행렬의 분할과 분할된 행렬의 곱에 대해 알아보자.

$$A = [a_{ij}]_{m \times n}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& \cdots & a_{1n} \\ a_{21} & a_{22} & \cdots & a_{2n} \\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a_{m1} & a_{m2} & \cdots & a_{mn} \end{bmatrix}$$

라 할 때,

$$\mathbf{a}_1 = \begin{bmatrix} a_{11} \\ a_{21} \\ \vdots \\ a_{m1} \end{bmatrix}, \mathbf{a}_2 = \begin{bmatrix} a_{12} \\ a_{22} \\ \vdots \\ a_{m2} \end{bmatrix}, \cdots, \mathbf{a}_n = \begin{bmatrix} a_{1n} \\ a_{2n} \\ \vdots \\ a_{mn} \end{bmatrix}$$

를  $A$ 의 열벡터(column vector)라 하고 행렬  $A$ 는

$$A = [\mathbf{a}_1 \ \mathbf{a}_2 \ \cdots \ \mathbf{a}_n]$$

로 표현한다. 또한  $A$ 의 행벡터(row vector)는

$$A_1 = [a_{11} \ a_{12} \ \cdots \ a_{1n}], A_2 = [a_{21} \ a_{22} \ \cdots \ a_{2n}], \cdots, A_m = [a_{m1} \ a_{m2} \ \cdots \ a_{mn}]$$

이며 행렬  $A$ 는

$$A = \begin{bmatrix} A_1 \\ A_2 \\ \vdots \\ A_m \end{bmatrix}$$

로 표현한다.

크기가  $n \times n$ 인 항등행렬  $I_n$ 의 열벡터

$$\mathbf{e}_1 = \begin{bmatrix} 1 \\ 0 \\ \vdots \\ 0 \end{bmatrix}, \mathbf{e}_2 = \begin{bmatrix} 0 \\ 1 \\ \vdots \\ 0 \end{bmatrix}, \cdots, \mathbf{e}_n = \begin{bmatrix} 0 \\ 0 \\ \vdots \\ 1 \end{bmatrix}$$

를  $\mathbb{R}^n$ 의 기본 단위벡터(unit vector)라 한다.

$A \in M_{m \times n}$ 이고  $A = [\mathbf{a}_1 \ \mathbf{a}_2 \ \cdots \ \mathbf{a}_n]$ 이면

$$A\mathbf{e}_1 = \mathbf{a}_1, A\mathbf{e}_2 = \mathbf{a}_2, \cdots, A\mathbf{e}_n = \mathbf{a}_n$$

을 만족한다.

만일  $A = [a_{ij}] \in M_{m \times p}$ ,  $B = [b_{ij}]_{p \times n}$  이고 행렬  $\begin{bmatrix} A_1 \\ A_2 \\ \vdots \\ A_m \end{bmatrix}$  를  $A$ 의 행벡터로, 행렬  $[b_1 \ b_2 \ \cdots \ b_n]$  을  $B$ 의 열벡터로 나타냈을 때, 행렬의 곱  $AB$ 는

$$AB = \begin{bmatrix} A_1 B \\ A_2 B \\ \vdots \\ A_m B \end{bmatrix} = [A b_1 \ A b_2 \ \cdots \ A b_n]$$

이 되며  $(AB)_{ij} = A_i b_j$ 가 된다.

(예제 2)  $A = \begin{bmatrix} 1 & 2 \\ 3 & 4 \\ 5 & 6 \end{bmatrix}$  와  $B = \begin{bmatrix} 1 & 2 & 3 \\ 4 & 5 & 6 \end{bmatrix}$  일 때,  $AB$ 를  $A$ 의 행벡터와  $B$ 의 열벡터를 이용하여 구하여라.

크기가  $5 \times 5$ 인 행렬  $A$ 를 다음과 같이 분할할 수 있다.

$$A = \begin{bmatrix} 1 & 0 & 0 & 0 & 0 \\ 0 & 1 & 0 & 0 & 0 \\ 0 & 0 & 1 & 0 & 0 \\ 0 & 0 & 0 & 1 & 2 \\ 0 & 0 & 0 & 2 & 1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I_3 & O_{3 \times 2} \\ O_{2 \times 3} & A_{2 \times 2} \end{bmatrix}$$

만일 행렬  $A$ 와  $B$ 가

$$A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\\ A_{21} & A_{22} \end{bmatrix}, \quad B = \begin{bmatrix} B_{11} & B_{12} \\ B_{21} & B_{22} \end{bmatrix}$$

를 분할이 되고 각 부분행렬 간에 곱셈이 정의된다고 하자. 그러면

$$AB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\\ A_{21} & A_{22}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B_{11} & B_{12} \\ B_{21} & B_{22} \end{bmatrix}$$

가 된다.

(예제 3)  $A = \begin{bmatrix} 1 & 0 & 0 & 0 & 0 \\ 0 & 1 & 0 & 0 & 0 \\ 0 & 0 & 1 & 0 & 0 \\ 0 & 0 & 0 & 1 & 2 \\ 0 & 0 & 0 & 2 & 1 \end{bmatrix}$  이고  $B = \begin{bmatrix} 2 & 1 & 4 & 1 & 1 \\ 4 & 2 & 2 & 2 & 2 \\ 3 & -2 & 1 & 3 & 1 \\ 1 & 3 & 1 & 0 & 2 \\ -1 & 2 & 6 & 1 & 3 \end{bmatrix}$  라 할 때,  $AB$ 를 구하여라.

### 정리 1.3.6 [행렬의 곱셈법칙]

$c$ 가 상수이고  $A = [a_{ij}]_{m \times p}$ ,  $B = [b_{ij}]_{p \times q}$ ,  $C = [c_{ij}]_{q \times n}$ 이면 아래 연산이 정의되고 또한 이 연산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.

- (a)  $(AB)C = A(BC)$
- (b)  $c(AB) = (cA)B = A(cB)$ ,  $-(AB) = (-A)B = A(-B)$
- (c)  $(A+B)C = AC + BC$
- (d)  $A(B+C) = AB + AC$
- (e)  $I_m A = A = A I_p$

연립방정식

$$\begin{aligned} a_{11}x_1 + a_{12}x_2 + \cdots + a_{1n}x_n &= b_1 \\ a_{21}x_1 + a_{22}x_2 + \cdots + a_{2n}x_n &= b_2 \\ &\vdots \\ a_{m1}x_1 + a_{m2}x_2 + \cdots + a_{mn}x_n &= b_m \end{aligned}$$

의 계수행렬은  $A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& \cdots & a_{1n} \\ a_{21} & a_{22} & \cdots & a_{2n} \\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a_{m1} & a_{m2} & \cdots & a_{mn} \end{bmatrix} = [\mathbf{a}_1 \ \mathbf{a}_2 \ \cdots \ \mathbf{a}_n]$  이고 상수행렬  $\mathbf{b} = \begin{bmatrix} b_1 \\ b_2 \\ \vdots \\ b_m \end{bmatrix}$  이다.

$\mathbf{x} = \begin{bmatrix} x_1 \\ x_2 \\ \vdots \\ x_n \end{bmatrix}$  이라 하면 위의 연립방정식은 행렬의 곱  $A\mathbf{x} = \mathbf{b}$  로 표현된다. 또한  $A$ 의 열벡터로

$$\mathbf{a}_1 x_1 + \mathbf{a}_2 x_2 + \cdots + \mathbf{a}_n x_n = \mathbf{b}$$

로 나타낸다.

(예제 4) 다음 연립방정식을 계수행렬과 계수행렬의 열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.

$$\begin{aligned} x - y + 3z &= -4 \\ 2x - 3y - z &= 2 \\ -x + y + 5z &= -4 \end{aligned}$$

### 정의 1.3.7

만일  $\mathbf{a}_1, \mathbf{a}_2, \cdots, \mathbf{a}_p$ 이  $\mathbb{R}^n$ 의 원소이고  $c_1, c_2, \cdots, c_p$ 이 상수일 때

$$c_1 \mathbf{a}_1 + c_2 \mathbf{a}_2 + \cdots + c_p \mathbf{a}_p$$

를 벡터  $\mathbf{a}_1, \mathbf{a}_2, \cdots, \mathbf{a}_p$ 의 일차결합(linear combination)이라 한다.

$$\mathbb{R}^n \text{의 원소 } \begin{bmatrix} a_1 \\ a_2 \\ \vdots \\ a_n \end{bmatrix} = a_1 \mathbf{e}_1 + a_2 \mathbf{e}_2 + \cdots + a_n \mathbf{e}_n$$

을 만족하므로  $\mathbb{R}^n$ 의 모든 원소는  $\{\mathbf{e}_1, \mathbf{e}_2, \dots, \mathbf{e}_n\}$ 의 일차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(예제 5) 다음의  $\mathbb{R}^3$ 의 원소가  $\mathbf{a}_1 = \begin{bmatrix} 1 \\ 0 \\ 1 \end{bmatrix}$ ,  $\mathbf{a}_2 = \begin{bmatrix} -1 \\ 1 \\ 0 \end{bmatrix}$ ,  $\mathbf{a}_3 = \begin{bmatrix} 0 \\ 1 \\ 1 \end{bmatrix}$ 의 일차결합으로 표시할 수

있는지 판정하여라.

(1)  $\begin{bmatrix} 1 \\ 1 \\ 2 \end{bmatrix}$

(2)  $\begin{bmatrix} 1 \\ 1 \\ 1 \end{bmatrix}$

(예제 6) 예제 4의 연립방정식의 상수행렬이 연립방정식의 계수행렬의 열벡터의 일차결합인가? 일차결합이 되면 일차결합으로 표현하여라.

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에 대하여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.

#### 정리 1.3.8

연립방정식  $A\mathbf{x} = \mathbf{b}$ 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상수행렬  $\mathbf{b}$ 가 계수행렬  $A$ 의 열벡터의 일차결합이다.

행렬의 거듭제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.

#### 정의 1.3.9

$A$ 가 정방행렬일 때  $A^2 = AA$ 로 정의하고 음의 정수가 아닌  $k$ 에 대하여  $A^k$ 을

$$A^0 = I, A^1 = A, A^k = AA \cdots A$$

로 정의한다.

$k$ 가 음수일 경우에도 정의되지만 이는 역행렬을 다룰 때 정의하자.

### 정리 1.3.10 [행렬의 거듭제곱]

$A$ 가 정방행렬이고  $k$ 와  $l$ 이 음이 아닌 정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.

(a)  $A^k A^l = A^{k+l}$

(b)  $(A^k)^l = A^{kl}$

(예제 7)  $A = \begin{bmatrix} 1 & 1 \\ 0 & 1 \end{bmatrix}$  일 때,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 $A^{100}$ 을 구하여라.

### 정의 1.3.11 [행렬 $A$ 의 전치행렬]

$A$ 가  $m \times n$ 일 때  $A$ 의 행과 열을 바꾸어 얻은  $n \times m$  행렬을  $A$ 의 **전치행렬**(transpose)이라 하고  $A^T$ 로 나타낸다. 즉

$$A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& \cdots & a_{1n} \\ a_{21} & a_{22} & \cdots & a_{2n} \\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a_{m1} & a_{m2} & \cdots & a_{mn} \end{bmatrix} \text{ 이면 } A^T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21} & \cdots & a_{m1} \\ a_{12} & a_{22} & \cdots & a_{m2} \\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a_{1n} & a_{2n} & \cdots & a_{mn} \end{bmatrix} \text{ 이고 } (A^T)_{ij} = (A)_{ji} \text{ 이다.}$$

(예제 8)  $A = \begin{bmatrix} 2 & 0 & 1 \\ 1 & -1 & 1 \end{bmatrix}$  일 때  $A^T$ 를 구하고  $AA^T$ 와  $A^T A$ 를 계산하여라.

### 정리 1.3.12 [전치행렬의 성질]

$c$ 가 상수이고 행렬  $A$ 와  $B$ 가 아래의 연산이 정의되면 이들 연산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.

(a)  $(A^T)^T = A$

(b)  $(A + B)^T = A^T + B^T$

(c)  $(cA)^T = cA^T$

(d)  $(AB)^T = B^T A^T$

(e) 음이 아닌 모든 정수  $k$ 에 대하여  $(A^k)^T = (A^T)^k$

**정의 1.3.13**

정방행렬  $A$ 가  $A^T = A$ 를 만족하면 행렬  $A$ 를 **대칭행렬**(symmetric matrix)이라 한다.

(예제 9) 임의의 행렬  $A$ 에 대하여 행렬  $AA^T$ ,  $A^TA$ 와  $A + A^T$  모두 대칭행렬이다.